

군산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군산시, 사업 실시계획 승인 374억 투입 내년 하반기 가동 연 7000가구에 전기 공급

군산 국가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사업자 피앤디솔라리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피앤디솔라리는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 3개 전북 업체(지분 85%)와 엘에스산전 등 2개 외지 업체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난 2월 군산시의 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회사다.

사업 승인에 따라 피앤디솔라리는 이달 말까지 군산시의 건축허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12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월에 착공, 2018년 하반기에 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이다.

민간자본 374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인 18.7MW급(면적 20만 4262㎡)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4월 피앤디솔라리는 군산시 소유의 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를 빌리고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군산시의 협약을 맺었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2만4571MW의

? 수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가 넓은 유수 수면을 활용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연간 7000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양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잣나무 28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군산시는 우수지 임대료 수입, 사업시행자 기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금 등으로 20년간 총 90억원 가량의 재정이익을 얻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신안서 만나는 신비의 동물 ‘해태’

내년까지 안좌도에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조성

상상 속의 동물 해태를 테마로 한 공원이 신안에 조성된다.

신안군은 2일 신안군 안좌도 건립 현장에서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기공식을 열었다.

해태는 시비곡직(是非曲直)을 판단하는 영물로 정의의 동물, 법의 상징으로 알려졌다.

공원 내 건립될 해태 테마 전시관은 1층에 전시실, 수장고, 다목적실, 카페 등이, 2층에는 로비와 2개 전시실이 들어선다.

수변을 활용한 건너편에는 특별전시실이 들어선다. 전시관 야외에는 해태상, 석탑, 문인석 등이 전시된다.

내년 하반기 신안군 안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새천년대교 개통에 맞춰 완공되며 사업비는 49억6000만원이다.

안좌도는 서양화가 김환기(1913~1974)의 고향으로 돌담, 고인돌 등 옛 문화가 잘 보존된 곳이다. 이 일대에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김환기 미술관 건립사업이 함께 추진돼 지역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신안군은 기대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 안좌도 해태상 조각품.



세계 해태상 테마전시관 조감도.

(신안군 제공)

제품 개발 지원·교육

광양 농산물가공센터

6일 봉강면서 준공식



광양에 농산물가공센터가 들어선다. 광양시는 오는 6일 봉강면 농업기술시범포장 내 농산물가공센터(사진) 준공식을 개최한다.

광양시는 지난해 농산물가공분야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사업비 10억여원을 확보해 400㎡ 규모의 농산물가공센터를 완공했다.

가공센터는 특히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컨설팅과 다양한 시제품을 상품화해보는 실습 교육을 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스, 썬, 푸딩, 분말 등을 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습식·건식가공실, 포장실 및 보관창고 등을 갖췄다.

광양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공 인력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지난해 열린 군산아트페어 &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품 등을 둘러보고 있다.

(군산시 제공)

작가 200명 참가 미술축제...3~5일 ‘군산아트페어’

전북지역 최대 종합예술전시회인 군산아트페어 & 핸드메이드 페어가 3일부터 사흘간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지스코)에서 열린다.

아트페어에서는 도내 개인 작가 200여명의 작품과 90개 업체의 회화, 공예, 조각, 미디어, 작품 등을 전시한 89개 부스를 운영한다.

핸드메이드 페어는 공예, 자수, 양초, 꽃, 수제 디저트, 수제 공예품 등을 63개 부서에 전시한다.

전체 전시 작품은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국내 미디어아티스트 5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미디어 산책전, 전주대 한승룡 교수를 비롯한 4명의 예술·독립극장 아티스트도 볼 수 있다.

한중 청년 교류전, 어린이 미술대회, 어린이 공예체험전, 아름다운가게 프리마켓도 함께 진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미술품, 핸드메이드 공예품, 체험전, 예술행사를 한 자리에 만나고 예술인과 어울리는 예술전시행사로 예술문화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고구마의 고장’ 해남서 한중일 워크숍

3~4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세계 고구마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아시아의 한·중·일 3국이 국제 워크숍을 연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제 8회 동아시아 고구마 국제 워크숍’이 3일부터 이틀간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다.

동아시아 고구마친선협회(회장 고우하라 시게키)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중·일 3국의 고구마 전문가, 가공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이 참석한다.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정보 교류를 통한 고구마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민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

3국의 고구마 산업현황과 기술 성과에 대한 주제발표, 고구마 가공산업과

관련한 3국 관계자의 자국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행사 참석자들은 해남과 영암에 있는 고구마 유통·가공업체 견학도 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고구마 국제 워크숍은 한·중·일 3국이 고구마 산업에 대한 각국의 연구 성과 발표와 협력연구를 위해 2년 주기로 각 나라를 돌아가며 열린다.

해남은 전국 최초로 고구마를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제42호 ‘해남고구마’)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구마 주산지다.

군 관계자는 “고구마는 각종 식재료와 가공식품의 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물도 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농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